

근로정신대 피해 실상 무대에...아프고 어두웠던 역사 치유되길

광주문화재단, 연극 '봉선화 III' ... 24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협약 일환...나고야 시민들 무대에

지난해 12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일본과 일본 기업은 강제노역에 대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요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근로정신대 피해 실상을 다룬 연극 '봉선화 III'가 광주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김요성)은 연극 '봉선화 III'가 광주시민을 찾아온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나가 토시오가 감독을 맡았으며 오는 24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무료 진행)이며 선착순 500명, 구글폼 또는 재단홈페이지 봉선화 홍보물 등 쿠폰코드 접속해 23일 오후 2시까지 예약하면 된다.

이번 공연은 '봉선화 III'로 나고야 시민들이 무대에 선다는 점에서 공연 이전부터 화제가 됐다. 지금까지 '봉선화'는 2003년 나고야에서 첫 무대(봉선화 I)를 가졌으며, 지난 2022년에는 '봉선화 II'

가 공연돼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광주문화재단 이종수 홍보팀장은 "이번 공연은 지난해 3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사장 이국인),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공동대표 다카하시 마코토)와 체결한 문화예술교류 협약의 후속 조치"라며 "당시 3개 기관 협약은 '봉선화'를 광주에서 공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번 공연은 나고야 시민들이 각자 시간을 조정해 연습에 임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 있다"며 "38년간의 지난한 과정을 연극이라는 예술 형식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들 직업과 연령대는 다양하다. 교직원, 회사원,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출연했고 중고생과 대학생, 70대 고령층까지 연령도 다채롭다.

작품 주제가 인권유린에 대한 역사 규명은 물론 피해 보상 해결에 초점을 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

다. 특히 일본 시민들이 배역을 맡아 무대에 오르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한편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이 뜻을 모아 지난 1998년 결성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는 그동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해왔다. 광주의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및 인권회복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광주에 있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2009년 설립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신으로 지난 2021년 4월 새롭게 조직이 개편됐다. 2018년, 2023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며 피해자들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편 김요성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공연은 일본 시민단체와 배우들이 저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완성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 가능했다"며 "이번 작품을 매개로 양국의 아프고 어두웠던 역사가 치유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근로정신대 피해 실상을 다룬 연극 '봉선화 III'가 오는 2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봉선화 III'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세기말의 사랑' 임신애 감독을 만나다

광주극장 새해 첫 GV, 24일 씨네토크... 김희정 감독 진행

2024년 광주극장에서 새해 첫 GV(게스트 비짓)가 열린다.

광주극장은 '세기말의 사랑' 임신애 감독 GV 행사를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 지난달 개봉한 임신애 감독의 영화 '세기말의 사랑'을 상영한 뒤, 관객들과 씨네 토크를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세기말의 사랑'은 뉴 밀레니엄 드라마를 기치로 내건 작품으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20세기 말 특유의 감성이 녹아있다.

1999년 12월 31일, 주인공 김영미(이유정 분)는 짝사랑하던 도영(노재원)에게 용기를 내 고백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영미 앞에 문득 '도영의 마누라'임을 주장하는 유진(임선우)이 나타나 혼란을 겪는다.

영미는 사랑과 돈을 모두 잃어버린 채 2000년 1월 1일을 맞이한다. 과연 세 사람은 오해와 갈등을



임선애 감독



김희정 감독



'세기말의 사랑'

넘어서 진정한 행복을 마주할 수 있을까.

임 감독은 데뷔작 '69세'로 이름을 알렸으며 2020년 제21회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감독상, 제1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박남옥상을 받기도 했다. 행사 진행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와 '프랑스 여자' 등을 연출한 김희정 감독이 맡는다.

독이 맡는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사랑과 용기, 연대 등이 담긴 작품을 감상하고 감독과 직접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저력 있는 여성 감독의 작품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봄'

아름다운 생명의 신비 '꿈꾸는 봄'

이경욱 개인전, 3월3일까지 영산강문화관

생동하는 봄기운이 화폭에 가득하다. 다양한 꽃과 식물의 입자들이 하늘을 향해 저마다 존재를 알리려는 것 같다.

다들 피어나는 봄의 생명들은 보는 이에게 황홀경을 선사한다. 꽃과 식물에서는 겨울의 흑한이나 인고의 시간 같은 한때의 어려움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자유분방하게 피어난 형태의 모습들이 생명의 위대함을 전달하는 것 같다. 봄이 주는 찬란한 일타의 기쁨이 화폭에 담겨 있다.

이경욱 작가의 '꿈꾸는 봄'은 우리들에게 봄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를 사유하게 한다. 질푸른 연초록은 생명의 역동성을, 화사한 분홍은 생명의 확장성을 환기한다. 한편으로 단순화된 조형적 이미지 이면에 드러내어진 작가의 심상을 그려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영산강문화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3월 3일까지 펼쳐지는 이경욱 작가의 개인전. 이번 전시는 영산강보관리단(이현아)·케이워터운영관리(주) 영산권역지사(신성규)에서 진행되며, '꿈꾸는 봄'이라는 주제처럼 전시실은 온통 꽃과

봄의 이미지로 화사하다.

'봄의 서정', '봄.봄', 'prime', 'messenger' 등 출품된 작품은 봄 소식을 알리는 녹색 외에도, 개화를 한 꽃들의 울긋불긋한 색으로 화려하다. 작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자연을 투사하며 거기에서 체득된 미적체험을 단순화된 선과 점 등으로 묘사한다.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작품에서 선들은 겹쳐지면서 화면을 구성하는 미묘하고 극적인 공동체 효과를 가져오며, 충돌되는 형태와 형태 사이에서 오는 긴장감을 부여한다"고 말한다.

이현정 과정은 "꿈꾸는 봄"을 주제로 열리는 이경욱 작가 전시는 성큼 우리를 곁에 다가온 봄을 저마다의 심미안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한다"며 "계절적인 볼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두의 삶에 화사하고 따스한 봄이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경욱 작가는 조선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각종 미술대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찾아가는 국악원 사업 국립남도국악원, 단체 모집



지난해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찾아가는 가·무·악 종합공연으로 '문화 힐링' 하세요.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전라남도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국악원' 사업 대상 시설을 모집한다.

국악원이 평소 거동 등이 불편해 공연장을 찾기가 힘들었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전통공연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12월까지 총 8회 공연을 펼칠 계획이며 선정된 단체가 원하는 장소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기관별 특성에 따라 노래, 춤, 기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김갑수 사업 담당자는 "평소 공연을 향유하기 어려웠던 문화사각지대를 국악원 예술단이 직접 찾아가는 사업으로 반응도 좋은 편이다"며 "신청 단체가 원하는 공간에서 진행하고,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레퍼토리를 구성해 왔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나라 밖 우리문화유산, 일본에 가장 많아

문화재청·국외소재문화재재단, 24만6304점 추산... 미국·독일 순

지난해 기증 포함 1550점 환수

과거 도난이나 약탈, 거래, 선물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땅을 떠나있는 문화유산이 24만 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총 24만6304점으로 추산된다.

세계 29개 국가의 박물관, 미술관 등 803곳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1월 기준(24만6272점)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도쿄국립박물관을 비롯해 일본 내 397개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한 한국 문화유산이 10만9801점으로, 전체의 4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6만5355점(26.5%), 독일 1만5692점(6.4%), 중국 1만3010점(5.3%), 영국 1만2805점(5.2%), 프랑스 6511점(2.6%) 등이 뒤를 이었다.

각 문화유산이 한국 땅을 떠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과거 서구열강의 침탈, 일제강점기 등 역사적 혼란을 겪으며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된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으나 정상적 거래나 기증, 외교 선물 사례도 적지 않다. 당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도자나 회화, 공예품을 여러 수집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환수한 나전국화비닐무늬상자

국의 반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소장 정보가 온전히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나라 밖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은 통계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단 관계자는 "수집한 정보를 검토해 매년 1월 공개하고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라며 "한국 문화유산 관련 정보와 실태를 조사하며 계속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과 재단은 수집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화유산의 환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1804년 추정~1866년 추정)가 제작한 병풍식 지도첩인 '대동여지도'를 비롯해 총 1550점(1083건)이 국내로 돌아왔다.

이 중에는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머물렀던 미국인 게리 에드워드 민터이 씨와 메리 앤 민터이 씨 부부가 기증한 옛 그림과 책, 사진 등 1516점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전남문화재단, 생애·목표별 문화예술교육 통합 공모

생애 맞춤, 유아, 지역 특성화 등 생애·목표별 문화예술교육 통합 공모가 진행된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은 전남도내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가진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26일 '2024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는 모두의 문화예술교육,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생애맞춤 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유아문화예술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지원 가능하다.

통합공모에 앞서 재단은 14일(무안 승달문예회관 대공연장), 15일(순천 전라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 각각 오후 2시에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재단 심현지 사업담당자는 "올해 사업 진행을 위해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성과공유회 등을 거쳐 지원사업을 설계했다"며 "지난해보다 감사비를 증액했으며 문화소외학교 문화예술교육을 '모두의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장하는 등 사업의 규모를 키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